

지역 소식 통

정읍시, 하반기 제 22기
귀농귀촌학교 힘찬 출발

정읍시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도시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길잡이가 될 '2025년 하반기 제22기 정읍시 귀농귀촌학교'가 문을 열었다.

정읍시와 정읍시 귀농귀촌센터는 지난 21일 황토현권역어울림센터에서 개강식을 열고 9일간의 본격적인 교육 과정에 돌입했다.

이번 교육은 21일부터 30일까지 총 60시간 동안 진행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예비 귀농귀촌인 30명을 대상으로 이론 교육과 현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병행해 운영된다.

특히 교육생들이 정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 생활의 이해·작물 재배 기술·선배 귀농인의 사례 공유·현장 방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사단법인인 정읍시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역 네트워크 형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일자리 서포터즈
활동단 수료식 개최

부안군은 지난 21일 부안군일자리센터에서 '일자리 서포터즈 활동단'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서포터즈 활동단'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지난 5월부터 부안군일자리센터의 지원사업과 고용서비스 구인·구직 내용 등을 홍보하며 군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들은 지난 5개월간 △농어촌일자리 지원사업 △구인·구직정보 제공 △구직자 면접지원 △동행면접 등 다양한 사업을 군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알리며 현장 중심의 일자리 서비스 강화했다.

최연근 부안군일자리센터장은 "일자리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부안군의 일자리 정책과 농어촌일자리 지원사업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내장산 웰니스 트레일 페스티벌’ 연다

정읍시, 25~26일 트레일러닝·숲 치유 프로그램·로컬브랜드 체험존 운영

단풍 명소로 사랑받아 온 정읍 내장산이 웰니스를 주제로 한 새로운 축제를 선보인다.

정읍시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내장산관광특구 일원에서 내장산 웰니스페스타를 열고, 기존의 단풍 관광을 넘어 자연 속에서 머물며 치유하는 체류형 관광의 첫발을 내딛는다.

이번 축제는 내장산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단풍 관광에 편중된 내장산 관광을 웰니스 중심의 체류형 관광으로 확장하기 위한 첫 공식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풍생태공원과 내장호 등 내장산국립공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트레일러닝대회·웰니스체험프로그램·로컬브랜드 체험존 등이다.

핵심 프로그램인 트레일러닝 대회는 사전 신청자 300명을 대상으로 18km와 11km 두 코스로 운영된다. 18km 중급자 코스는 내장산단풍생태

공원을 출발해 서래탐방지원센터·불출봉·내장사·신선봉·장군봉 등을 거쳐 돌아오는 길이다. 11km 초급자 코스는 불출봉과 내장사를 중심으로 한 비교적 짧은 코스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기록 경쟁보다는 호흡과 자연에 집중하는 러닝 경험을 지향한다"며 참가자 안전을 위해 전문 운영팀과 의료지원 체계도 함께 운영한다고 밝혔다.

숲속요가·치유러닝·단풍 싱잉볼·사운드 워킹 등 총 5회에 걸쳐 진행되는 웰니스 프로그램도 기대를 모은다.

사전 모집은 마감했으나 상황에 따라 일부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참가자들은 숲에서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에 집중하며 신체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체험하게 된다.

행사 기간에는 정읍의 매력을 알리는 로컬브랜드 체험존 개소도 운영된다. 정읍지황음복합사업단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영농조합법인 명품귀

리사업단, (주)유기농 비건, 생화차커리협의회,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정심', 숯타액떡(송죽마을) 등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참여해 농특산물 체험과 로컬 콘텐츠 판매를 진행, 관광 소비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또 내장산단풍생태공원 일원을 중심으로 분산 운영해 단풍 시즌 방문객과의 동선 충돌을 최소화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며, 피크니존을 마련해 행사 참여자와 관광객이 가을 정취를 즐기며 머무는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행사는 내장산의 자연을 '보는 관광'에서 나아가 직접 체험하고 머무는 웰니스 관광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단풍 관광객과 행사 참여자 모두가 안전한 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의 대표 농특산물이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은 명품 요리로 재탄생했다.

정읍 농특산물의 화려한 변신

‘건강밥상의 완성: 정읍 슈퍼푸드 메뉴개발 품평회’ 성료

정읍의 대표 농특산물이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은 명품 요리로 재탄생했다. 정읍시와 정읍시지역활력센터는 지난 21일 순문화관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건강밥상의 완성: 정읍 슈퍼푸드 메뉴개발 품평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정읍의 대표 농특산물을 활용해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19일부터 약 2개월간 20명의 교육생이 (사)식품의산업연구소의 지도로 정읍 특산물을 활용한 조리법과 가공 기술을 배우는 전문 교육 과정이 진행됐다.

품평회장에는 교육생들이 개발한 16종과 전문가가 만든 4종 등 총 20종의 메뉴가 전시돼 참석자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교육생들은 4개 조로 나뉘어 저마다의 개성을 뽐냈다.

1조는 고구마귀리죽·지황녹두떡갈비·귀리베리영양볼·녹두치킨크로켓 등 든든한 식사 메뉴를 선보였고, 2조

는 블랙베리스테이크·귀리리소토·지황블루베리스무디·녹두담가슴살버거처럼 특산물을 양식에 접목해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

3조는 토마토귀리김치·두릅토마토귀리슬라ם·수박껍질무침·쌍화향정살조림 등 한식의 깊은 맛을 재해석했으며, 4조는 지황정과·귀리쿠키·베리귀리파운드케이크·지황장아찌 등 디저트와 가공식품에 집중해 상품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여기에 전문가가 지황사과젤리드·청정목밥·귀리불고기롤러드·틀깨스타미강정 등 완성도 높은 4종의 메뉴를 더해 품평회 격을 높였다. 고구마귀리죽과 지황녹두떡갈비부터 블랙베리스테이크·귀리리소토·쌍화향정살조림 등 품격 있는 요리가 주를 이뤘다. 또한 지황정과·귀리쿠키 같은 디저트류와 지황장아찌 등 가공식품까지 다채롭게 구성해 활용 가능성을 넓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지진안전주간 지진행동요령 홍보 캠페인

부안군은 2025년 지진안전주간을 맞아 군민들의 지진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진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행동요령 홍보 캠페인을 지난 21일 부안종합시외버스터미널 일원에서 실시했다.

지진안전주간 운영은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규모 5.8의 경주 지진(2016년 9월 12일) 발생을 계기로 2017년부터 매년 추진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기간에 동시에 참여하는 행사로, 부안군도 지난 6월 12일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어, 지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지진행동요령 전단지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와 '부안북북', 시가지 현수막 게시대 등을 활용해 지진안전주간 홍보 이미지를 게재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지진안전.com)에서도 지진행동요령 안내, 참여형 이벤트, 영상콘텐츠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농식품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최종 선정

고창군, 애플수박 전용 스마트선별기 구축·유통센터 개보수로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

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공모에서 최종 대상으로 선정돼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사업이 추진된다고 22일 밝혔다.

총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해 고창군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애플수박 전용 스마트선별기 구축과 유통센터 시설 개보수 사업이 진행된다. 애플수박의 정밀한 선별과 등급화가 가능한 스마트 선별시설을 도입해 생산·선별·출하의 일원화 체계를 구축, 물류 효율성과 품질관리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저온저장시설과 선별장 개보수 등도 진행돼 농산물 저장 능력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 위생관리 수준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새로 구축되는 '스마트선별기'와 ERP기반 데이터 관리시스템은 입고·선별·포장·출하·정산 등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APC 체계의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생산·유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정산의 투명성과 시장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고창군은 앞서 9월 서면 평가를 거

쳐 2026년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됐다. 10월 세부사업비 심의 발표 평가를 거쳐, 금번에 최종 확정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특히 스마트 선별기 도입을 통해 고창 애플수박의 품질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유통 현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해 국가에 산 확보와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내달 1일부터 노인요양병원서 보훈대상자 위탁진료

고창군은 고창노인요양병원이 국가보훈부 보훈의료 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오는 11월1일부터 보훈대상자에 대한 위탁진료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훈위탁병원은 국가보훈부와 위탁진료 계약을 체결해 보훈대상자에게 진료와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보훈등급에 따라 진료비 전액 또는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고창군은 보훈대상자들이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와 전북서부보훈지청에 지속적으로 위탁병원 지정을 건의해 왔다.

그결과 고창노인요양병원이 관내 요양병원으로는 처음으로 위탁병원에 지정되어 보훈가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위탁병원 지정은 보훈가족의 의료복지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에는 고창노인요양병원을 포함해 총 5개의 위탁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고창병원, 우리들마취통증의학과의원, 이진흥내과의원, 플란트유치과의원에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